

# “이젠 사람들이 우릴 어색해하지 않아요”

**‘더 짠내투어’ 합류 이용진**  
진호와 중학생때 ‘함께 웃겨보자’ 못쳐 반짝스타 싫다...박명수선배처럼 길게

**‘풀 뜯어먹는 소리’ 이진호**  
‘코빅’ 조연출이 PD가 돼 예능 러브콜 시골 장터 할머니가 알아봐 기분 좋아



개그맨 이용진(왼쪽)과 이진호는 최근 쏟아지는 ‘예능 러브콜’의 비결을 ‘꾸준함’으로 꼽았다. 사진은 이들이 tvN ‘괴물라떼이츠’를 촬영 중인 모습. 사진제공 | tvN

“전엔 사람들이 ‘개그맨이다!’ 했는데 지금은 이름으로 불러줘요.”  
개그맨 이용진(34)과 이진호(33)는 확실히 상승세였다. 인터뷰 중에도 계속 이어지는 팬들의 ‘인증샷 세례’가 그 증거였다. 두 사람은 “이젠 사람들이 우리를 어색해하지 않는다”며 신기해하는 표정이다.

올해 예능프로그램 행보에 박차를 가한 성과다. 이용진은 1월 KBS 2TV ‘1박2일’을 시작으로 tvN ‘더 짠내투어’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합류했다. 이진호도 tvN ‘풀 뜯어먹는 소리’ 시리즈 등에서 활약 중이다. 새 ‘예능 아이콘’으로 반짝 떠오른 이들은 17일 서울시 성북구 동덕여대에서 만났다.

● “갑자기 나타났다? 꾸준했는데...”

이용진과 이진호는 사실 tvN ‘코미디 빅리그’ 등 개그 무대에만 전념해왔다. 그런 이들이 예능프로그램에 얼굴을 내밀게 된 것은 왜일까.

“인연 덕분이다. 우리가 막내 개그맨 때 만난 조연출들이 어느 덧 메인 연출자가 됐다. 그들이 우리를 다시 불러줬을 뿐이다.” (이진호)

“둘 다 ‘예능 스타가 될 거야’ 같은 욕심은

없다. 그저 우리와 잘 맞는 프로그램에서 ‘힘 빼고’ 신나게 했을 뿐이다. 그 세월이 오래니 시청자도 익숙해졌고, 자연스럽게 예능프로그램 섭외도 늘었다.” (이용진)

2004년 데뷔한 이용진과 2005년 활동을 시작한 이진호는 그동안 쉽지 않은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최근 ‘예능 러브콜’을 그 부지런함의 결과로 받아들인다. 그렇기에 “이전과 다름 바 없어”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래도 대중의 ‘환대’는 분명 “기분 좋은 변화”다. 이진호는 “시골 젓갈장터에서 만난 여든 넘는 할머니께서 ‘이진호 씨 아니세요?’라고 물어보셔서 정말 깜짝 놀랐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 “중학교 선배배 사이...이젠 가족 같아”

이들은 2005년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 때부터 줄곧 함께 개그를 켰다. ‘용이

아버지’ ‘가족음악가락관’ 등 히트 코너를 만들었다. 팬들은 이들에게 ‘용진호’란 별명을 붙여줬다. 콤비의 역사는 10대 시절 시작됐다.

“중학생 때 만나 ‘함께 사람들을 웃겨보자’고 결심했다. 어쩌면 가족보다 더 오래된 사이다. 슬럼프도, 개그의 달레마도 겪었지만 항상 (이)진호가 힘이 돼 줬다. 세월을 거치며 쌓인 둘만의 호흡과 에너지가 개그의 원동력이다.” (이용진)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거친 개그계를 헤쳐 왔다. 여러 스타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걸 바라보면서는 “인생의 큰 공부”를 했다.

“늘 만족하지 않고 다음을 준비한다. 한 코너가 대박이 나도 똑같았다. 무언가 한 이미지로 남기 싫어 멈추지 않으려 했다. 그런 꾸준함이 우리의 ‘답’인 것 같다.” (이진호)

● “결혼해 책임감 ↑...인생 만족도는 200%”

두 사람은 ‘용진호’의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공개한다. tvN D 웹콘텐츠 ‘괴물라떼이츠’ 2월 시즌1을 공개해 호평을 얻어 다음달 5월 시즌2를 선보인다. “섭외 아이디어를 마구 낸다”며 넘쳐나는 의욕을 드러냈다.

지난달 14일 7년 연애 끝에 결혼한 이용진은 “책임감이 더 생겼다”며 신혼생활의 재미를 전한다. “인생 만족도 최고”라며 웃는다.

“반짝스타”는 싫다. 늘 기대감을 주는 개그맨이고 싶다. 지금처럼만 하면 될 모텔인 박명수, 지상렬 선배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최대한 많이 ‘던져’ 보겠다. 하하하!”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4



이민정(왼쪽)과 이병헌

이병헌·이민정 부부, 美 LA 주택 구입

배우 이병헌·이민정 부부가 미국 LA의 주택을 구입했다. 22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미국을 오갈 일이 많아 집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 시가 23억여 원의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은 2009년 영화 ‘지.아이.조’ 이후 한국과 할리우드를 오가며 활동 중이다.

KBS 박은영 아나운서 9월 결혼



박은영 아나운서

KBS 박은영 아나운서(37)가 9월 결혼한다. 박은영 아나운서는 9월 말 새 살 연하연인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박 아나운서와 예비신랑은 선배 아나운서의 소개로 만나 1년여 동안 교제해왔다. 박은영 아나운서는 2007년 KBS 33기 공채로 입사해 ‘도전! 골든벨’ ‘뮤직뱅크’ ‘연예가중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2AM 창민, 부산대 환경미화원 명목 벌어



2AM 창민

그룹 2AM 출신 창민이 21일 부산대 캠퍼스에서 벌어진 사고로 희생된 환경미화원에 대한 명복을 빌었다. 창민은 22일 SNS를 통해 전날 부산대 미술관 건물 외벽 벽돌이 떨어지는 사고로 환경미화원이 숨진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당초 22일 이 대학 축제무대에 서려던 그는 행사가 취소된 사실을 알리며 아픈 마음을 밝혔다.

MBC 교양프로그램 밤 10시대 편성

MBC가 교양프로그램을 10시대에 편성한다. MBC는 22일 ‘월~목요일 오후 8시55분에 방송해온 교양프로그램이 밤 10시55분으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실화탐사대’를 시작으로 23일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6월3일과 4일 각각 ‘스트레이트’와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가 차례로 방송시간을 옮긴다. MBC는 앞서 드라마를 밤 10시대에서 9시대로 앞당겼다.

## 손석희 대표 ‘기자 폭행’ 혐의 송치...배임은 무혐의

“구체적 행위 하지 않아 배임 혐의 없음”  
기자 김씨 금품 요구 공갈미수 혐의 적용

손석희 JTBC 대표이사(63)의 프리랜서 기자에 대한 폭행 혐의 등을 수사해온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임 등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또 프리랜서 기자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냈다.

이런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석희 대표의 배임 및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손 대표는 앞서 올해 1월 프리랜서 기



손석희 JTBC 사장

자 김 모 씨(49)로부터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씨는 1월10일 밤 11시50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이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 한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난 손 대표 차량과 견인차량의 접촉사고를 취재하려 하자 손 대표가 JTBC 채용을 제안하며 회유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를 거절하자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면서 그 증거로 전치 3주 진단서와 “아팠다면 폭행이고 사과한다”는 손 대표의 발언이 담긴 음성파일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손 대표는 “정신 차리라”며 손으로 김 씨를 툄툄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또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다”면서 “그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면서 그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김 씨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손 대표에 대해 폭행치상이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은 “손 대표가 김 씨에게 손을 댄 것은 정황상 폭행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용역 계약을 맺거나 관련 논의를 하는 등 “실행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행위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는 등 공갈미수의 수단이 협박이었다’면서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손 대표의 폭행 혐의에 기소 의견을 낸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백승미 기자 bsm@donga.com

## 현빈·손예진, ‘사랑의 불시착’ 동반출연 확정

(tvN 드라마)

올해 초 열애설...연기로 정면돌파

동갑내기 배우 현빈(37)과 손예진이 두 차례 불거진 열애설을 연기로 ‘정면 돌파’한다.

이들이 박지는 작가의 신작으로 11월 방송하는 tvN ‘사랑의 불시착’(가제)에서 연인 호흡을 맞추기로 22일 확정했다. 두 사람은 ‘사랑의 불시착’에서 남북한을 배경으로,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손예진)를 지키면서 사랑에 빠지는 북한군 특급장교(현빈)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2018년 영화 ‘협상’ 이후 두 번째로 만나는 무대다.

현빈과 손예진은 올해 1월 열애설에 두 번이나 휘말렸다. 여기에 신작의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일부 대중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고 있다.

이날 양측은 이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다. 현빈 측은 “여러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빈



현빈(왼쪽)과 손예진

보다 앞서 출연 제안을 받은 손예진 측은 “출연 결정 여부에 (열애설)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처음으로 경험하는 ‘스타작가’와 화려한 역할이라는 드라마의 매력에 킷다”고 설명했다.

현빈은 영화 ‘공조’(2017)에 이어 또 다시 북한군을 연기한다. ‘공조’ 속 거친 액션 연기로 드러낸 남성미를 ‘사랑의 불시착’으로 이어간다. ‘수려한 외모에 최정예 실력을 갖췄다’는 캐릭터 설명이 그의 활약을 기대하게 한다. 손예진은 데뷔 이래 가장 눈부시게 변신한다. 재벌가 상속녀 설정에 따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함으로 장식한다. 백승미 기자 bsm@donga.com

## 무명 임재현 놀라운 역주행...사재기 논란까지

‘사랑에 연습이...’ 입소문에 음원 1위 방탄·잔나비 등 따돌리자 뜬소문도

또 다시 음원 사재기 의혹이 불거졌다. 국내 음원사이트 중 최대 규모의 멜론 실시간 차트에서 21일부터 이틀째 가수 임재현의 ‘사랑에 연습이 있었다면’이 1위에 오르면서다. 다른 음원차트에서도 3위에서부터 10위까지 순위가 급상승했다.

해당 곡은 임재현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래로, 최근 갑자기 ‘역주행’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발표 당시에는 인지도가 전혀 없었던 무명의 가수인데다, 갑자기 방탄소년단, 위너, 잔나비 등 기존 ‘음원 강자’들을 제치며 1위에 올라섰고 100위 밖에서부터 1위까지 올라오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탓이다. 이에 “음원 사재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노래가 좋아서”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노래방이나 유튜브 등 음악과 관련



임재현

된 다른 플랫폼에서 해당 곡에 대한 관심의 분위기가 서서히 형성됐다는 의견이 많다. 보컬그룹 먼데이키즈의 이진성을 비롯해 중견가수 권인하, 한 오디션 우승자, 여기에 한 장애인 크리에이터 등의 ‘커버’(따라 부르는 것)곡이 유튜브 등에서 화제가 된 것이 근거로 제시됐다. 실제로 22일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각 동영상은 2~3개월 전부터 게시됐고, 조회수도 적게는 11만뷰, 많게는 220만뷰까지 넘어섰다.

앞서 임재현처럼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았던 가수들도 비슷한 유행을 보이곤 했다. 공통적으로 밤에 조용히 듣기 편한 발라드곡이고, 다른 가수나 성인남성들이 노래방 등에서 자주 부르며 인기를 얻었다. 관련 의혹으로 거센 비난에 시달린 해당 가수들은 “억울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